

서울인디애니페스트 2025 수상작 리스트

부문	작품	감독
인디의 별	후잉	최지희
독립보행	소화불량	한현지
새벽비행	유리에게	정현진
심사위원 특별상	포자러브	김승연, 박지선
KIAFA 특별상	찐따밴드	류이레
음악/사운드 부문상	도래지	이주석 (감독: 서평원)
KAFA 특별상	겁쟁이 노이프와 꼬프체크	최하영
축제의 별	타이니리틀저니	이진우
랜선비행상	My Roommate, Daldal	김다원
랜선비행 관객상	다람쥐와 청설모	훗짜(김수민)
아시아로 대상 '아시아의 빛'	마이 브라더, 마이 브라더	압델라흐만 드네와르, 사드 드네와르
아시아로 심사위원 특별상	풍경의 베일	치히로 야마나카
아시아로 관객상	me*	리나 이토
미래내로 대상 '미래내의 별'	광장	김보솔
관객심사단상	가구들의 사후세계	백윤선
애니 WIP 피칭	An Apple	안현정

서울인디애니페스트2025 수상작 발표 및 심사평 Seoul Indie-AniFest2025 Award Announcement

[독립보행/새벽비행 심사총평]

2025년 다시 새로운 1회, 21회를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표현 방식 속에서, 우리 시대의 현재 상황만큼이나 우리의 독립 애니메이션 역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정된 총 6개의 수상작 중, 그 어떤 하나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고, 다양한 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결론은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러티브'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감독님들 각자의 고유한 표현 기법과 연출로, 얼마나 더 깊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설득했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허공에 홀로 외치는 함성보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에 우리 시대의 새로운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허범욱)

2025 is the year of the twenty-first festival, marking a new beginning. Through their diverse stories and expressions, independent animations are not unlike the rest of the world in our current times, striving to move forward into a new era. With six awards to be given, it was not an easy task to choose even a single winner, requiring many lengthy discussions. Ultimately, all decisions came down to the question, "What makes a good story?" It wasn't only a matter of the narrative. It was a question of how deeply the directors, each with their own directorial and expressive methods, were able to move and persuade our hearts. We believe that the path ahead for our generation lies not in shouting alone into the void, but in holding conversations while seeing each other face to face. To our colleagues who have persevered in spite of the harsh and challenging modern environment, we extend our deepest respect and applause. (HUR Bumwook)

- 대상 '인디의 별' Grand Prize 'Star of Indie'

[후임 HOOING] 최지희 CHOI Jeehee

가슴 시리게 힘겨운 서사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 특유의 힘겨움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달려가 정면승부를 합니다. 감독이 갈고 닦아 온 성실한 연출법과 애니메이션을 총동원하여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자연스레 우리는 주인공 캐릭터에 깊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올해, 그 어떤 작품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작품의 진득한 완성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감독의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되어, 다시 새로운 1회를 여는 제21회 서울인디애니페스트 '인디의 별'로 밝게 빛남을 온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허범욱)

The heartbreaking narrative is not simply witnessed from afar, but confronted head-on in this animation. The director is tenacious in their approach to this story, using all of their earnest directing and animating techniques honed over the years. The viewers naturally empathize with the main character, perhaps more deeply than in any other animation this year. This is not easy to come by. It is the result of intense thinking and innumerable trial and error. And that is ultimately

what perfected this animation. The director's tireless efforts have paid off in the end. At the 21st Seoul Indie-AniFest which marks a new beginning, the members of the jury wholeheartedly congratulate this director on shining brightly as this year's Star of Indie. (HUR Bumwook)

- 독립보행상 Prize for Independent Walk

[소화불량 Indigestion] 한현지 HAN Hyeonji

우리는 서서히 자기 파괴와 붕괴의 길로 들어서는 주인공을 따라가게 된다. 이야기는 점차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몰락을 심연 속으로 끌어들이며 전개된다.

강렬한 연출과 치밀하게 구성된 이야기는 이 추락의 과정을 섬뜩할 만큼 명확하게 드러내고,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과 숨 막히는 공포를 엮어내어 마지막 순간이 지난 뒤에도 오래도록 잔상을 남긴다. (긴츠 질바로디스)

We follow a protagonist who gradually self-destructs and deteriorates,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as the narrative steadily draws us deeper into their unraveling. Strong direction and a tightly constructed story give the descent a chilling clarity, weaving together an atmosphere of mounting tension and suffocating horror that lingers long after the final moment. (Gints ZILBALODIS)

- 새벽비행상 Prize for First Flight

[유리에게 Dear Yuri] 정현진 JUNG Hyunjin

좋아하는 이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심을 재치있게 풀어내, 관객에게 은근한 울림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그림일기를 써 내려가는 주인공의 현실과 일기 속에서 펼쳐지는 초현실적 세계가 자연스럽게 맞닿은 채,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는 잘 짜여진 상징적 장면들이 잔잔한 선율 속에 눈물처럼 한숨처럼 흘러 갑니다. 이리저리 출렁이는 주인공의 마음을 균형 있게 드러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섬세한 연출력이 감독의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정승희)

This animation cleverly shows the feelings that were never shared with an unrequited love, leaving the audience with a subtle lingering feeling. As the main character keeps a picture diary, we can see the real world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surreal world inside her diary. The well-crafted scenes are filled with symbols that reveal the character's inner conflict, and these scenes flow like tears and sighs against a soft melody. The delicate direction shows the main character's turbulent emotions in a balanced way that the audience can relate to, making us expect great things in the director's future. (JUNG Seunghee)

- 심사위원 특별상 Jury Special Prize

[포자러브 Spore Love] 김승연, 박지선 KIM Seung-yeon, PARK Jeesun

<포자러브>는 애니메이션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관객을 몰입적인 여정으로 이끈다. 표현력 있는 색채, 감각을 자극하는 음악, 정교하게 설계된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 폭넓은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독창적인 분위기로 관객을 휘감으며 매 순간의 울림을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모든 프레임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추상적인 감정을 선명한 체험으로 전환시키고, 그 잔상은 관객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긴츠 질바로디스)

The film takes us on an immersive journey, telling its story in ways only possible through animation. Through expressive colors, evocative music, and meticulous sound design, it evokes a wide spectrum of sensations, enveloping us in its unique atmosphere and heightening the impact of every moment. Every frame feels alive with intention, turning abstract emotions into vivid experiences that linger with the viewer. (Gints ZILBALODIS)

- KIAFA 특별상 KIAFA Special Prize

[찐따밴드 NERD BAND] 류이레 RYU Jireh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로 버티는 것, 존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교실이라는 작고 절대적인 세계에서 자신의 취향을 지키며 고립을 자처한 주인공의 작은 모험을 보여줍니다. 그 모험에 함께 하게 된 친구도요.

깔끔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힘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반짝이는 작품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이원우)

Sometimes it's not easy to survive or even exist outside the mainstream. This animation is about the small adventures of a character who chooses isolation and to keep their own preferences in the tiny, absolute world of the classroom. The character is joined by a friend on their adventure. It may not be neat and perfect, but this animation lets us feel strength and joy, and for that we are grateful to have discovered this shining gem. (LEE Wonwoo)

- 음악/사운드부문 특별상 Special Prize for Music/Sound

[도래지 Doraeggi] 이주석 음악감독 LEE Jusuk Music Director

이 작품의 섬세한 사운드 디자인은 관객에게 공간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공간의 전환과 인물의 감정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서사의 흐름을 강화합니다.

갈대를 스치며 나가는 소리와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이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게 하고,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새들의 날갯짓은 인물의 감정을 고조시키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운드의 탁월한 표현이 작품의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고 느껴 선정하였습니다. (이건호)

The delicate sound design of this animation not only provides the audience with a sense of place and realism, but also strengthens the narrative flow by effectively expressing space-time transitions and the characters' changing emotions.

The sounds of passing through reeds and the train entering the platform take us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The fluttering wings of birds flying up from the ground heighten the characters' emotions and add richness to the story's depth. We selected this film as the winner for its expressions of sounds which added to the excellence of the animation. (LEE Geonho)

- KAFA 특별상 KAFA Special Prize

[겁쟁이 노이프와 꼬프체크 Coward Hoïv and ковчег] 최하영 CHOI Hayoung

이 작품은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한 역할에 대한 소극적 반항을 솔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진심이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한 데 모여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역설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은둔의 공간을 침범해 들어오는 외부인을 향해 주인공이 내뿜는 대사에서 우리는 작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바깥에서 본 그의 삶은 우스꽝스럽지만, 우리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습을 한 편의 풍자시로 표현한 이 작품에 카파 특별상을 드립니다. (노경무)

This animation earnestly portrays a passive way of revolting against the roles that society imposes on individuals. We were captivated by the film's ability to be sincere without being calculating. The animation evokes empathy in a strikingly paradoxical way by bringing together elements that seem unfamiliar and incomprehensible. We felt delight on hearing the main character speak to the outsider invading their secluded space. Seen from the outside, the character's life may seem comical, but we could not turn away from it. We wish to award the KAFA Special Prize to this animation which offers a satire of modern society. (NOH Gyeongmu)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타이니리틀저니 Tiny Little Journey] 이진우 LEE Jinwoo

[랜선비행 총평]

영상이 시작되자 심사를 한다는 마음가짐에서 관객의 마음이 되어 몰입감 있게 감상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작품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고 고뇌도 컸지만, 그만큼 좋은 작품을 많이 만났다는 것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랜선 비행을 마친 여러분들의 앞으로 더 큰 비행에도 승객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몸 건강히 작품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키크니)

When the screening began, we were no longer jury members but became part of the audience immersed in the animation. Choosing just one of the works in the competition was painful and difficult, but we were also overjoyed to see so many excellent finalists. We thank the directors for presenting these web animations, and we wish them luck on their work so that we may join them again on future flights of their imagination. (Keykney)

- 랜선비행상 Prize for the Best Web Animation

[My Roommate, Daldal 달달이는 내 룸메] 김다원 KIM Dawon

영화는 평범한 일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그 일상은 특별해집니다. 한 장 한 장의 프레임이 모여서 주인공이 살아 움직이고, 그 눈빛과 표정,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고 어느새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영화 속 이야기에 공감하고 웃기도 하면서 '나도 주인공과 친구가 되고 싶다' 생각하기도 하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앞날을 응원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현실에 살아있는 줄로 알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는 마법 같은 작품입니다. (박현지)

The animation is set during an ordinary day like any other, but that moment becomes something special when the main character appears. The frames, made one by one, come together to make the character move and come to life. As we follow their gaze, expressions, and movements, the border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becomes blurred until suddenly our hearts are stolen away. The story invites empathy and laughter, making us want to become the main character and their friend. When the animation ends, we root for their future. The characters in the animation feel like people from the real world, reminding us of the feelings from our childhood through a magical experience. (PARK Hyeonji)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다람쥐와 청설모 The Chipmunk and the Squirrel] 훗짜(김수민) Huttzza(KIM Sumin)

[아시아로 총평]

올해도 각양각색의 아시아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일상과 맞닿아 있는 장면들을 포착하기도, 특색 있는 관점으로 독특한 세계를 그려내기도 하여 이를 통해 광대하고 다양한 아시아를 엿볼 수 있어 무척 즐거웠습니다. 아시아 속 급격한 산업화와 세계화가 전례 없는 윤택한 미래를 약속하기도,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하는 모순적인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속에서 무력하고 단절된 개인들의 모습을 깊이 있게 드러내는 동시에, 자연과 일상,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시선과 마음 한편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2025 is another year full of animations that capture the myriad faces of Asia. From scenes that touch our everyday lives to peculiar perspectives of strange worlds, these animations offered a glimpse into the vastness and diversity of Asia and were an enormous joy to watch.

We have arrived at a paradoxical era in whic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Asia are both promising an unprecedented future of abundance and also threatening mankind's sustainability. Within this context, these animations search for their own answers, painting a profound portrait of people that are powerless and isolated while also reflecting on nature, everyday life, and the past. We wish to thank each of you for the joyful opportunity to share in your thoughts and perspectives through this review process. (LEE Sasha)

- 아시아로 대상 '아시아의 빛' Grand Prize 'Light of Asia'

[마이 브라더, 마이 브라더 My Brother, My Brother] Abdelrahman DNEWAR, Saad DNEWAR 압델라흐만 드네와르, 사드 드네와르

억압된 세계 속 작은 틈으로 의문을 던지는 형제의 눈에는 연대와 진실의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과 단절 앞에서 마주한 먹먹함은 도리어 현실적으로 다가오며, 나지막이 형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어쩌면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전진규)

The brothers question the cracks in this oppressed world, and their eyes are filled with solidarity and truth. The numbness of facing death and separation beyond human power feels too real, and the voice softly calling the brother's name may hold a forever unfathomable question. (JEON Jinkyu)

- 아시아로 심사위원 특별상 Jury Special Prize

[풍경의 베일 Veils of Landscape] Chihiro YAMANAKA 치히로 야마나카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드는 풍경은 경계 없는 시간 속에서 사색의 곁을 만들어냅니다. 추상적이면서도 다층적인 화면은 볼수록 새로운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매번 다른 감정과 기억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화면 속 색채는 바람처럼 일렁이며 감각을 흔들고,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이나윤)

The landscape feels like a warm breeze, offering a contemplative moment within the boundlessness of time. With every viewing, the abstract yet multilayered visuals reveal something new and beautiful, inviting us into a different emotion and memory. The colors sway like the breeze and stir the senses, leaving a gentle lingering impression. (Grace Nayoong RHEE)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나는, 나도, 내가, 나를, me*] Rina ITO 리나 이토

[미리내로 총평]

세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선보입니다. '문지:홈커밍'은 주인공의 모험을 통해 가족애와 우정의 귀여운 갈등을 그려냅니다. '마라쿠다의 전설'은 원시시대와 판타지를 기발하게 접목한 아이디어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돋보이며, 스토리 흐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광장'은 2D 애니메이션 특유의 뛰어난 표현력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선명한 색채 대비가 관객을 작품 세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상징성이 담긴 구도와 장면들이 스크린을 유심히 관찰하게 만듭니다. (홍대영)

These three animated features each had their own strong unique qualities.

[Moonzy: Homecoming] portrays cute little conflicts that are part of family and friendship through the main character's adventure. [The Myth of Maracuda] presents charming characters and ideas that brilliantly blend the primitive age with fantasy. [The Square] uses the strength of 2D animation in a highly expressive way and leaves a deep, lingering impression.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vivid colors, as well as scenes and structures full of symbolism, the audience is drawn into the animated world. (HONG Dae-yeong)

- 미리내로 대상 '미리내의 별' Grand Prize 'Star of Mirinae'

[광장 The Square] 김보솔 KIM Bo-sol

이 작품은 절제된 화면과 대사 너머에 짐작하기 어렵고도 익숙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연결이 단절된 곳에서 연결되고자 하는 안쓰러운 마음을 소리치기보다 낮게 읊조리는 연출. 같은 공간, 너무나도 다른 사회적 제약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마음은 심도있고 인내심 있는 시선속에 우직하며 입체적입니다. 가깝지만 가장 먼 이웃들의 마음속, 그들을 평이하게 연민하기보다, 우리와 같은 외로움을 지닌 사람으로 표현해낸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을 세심한 준비의 과정을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사회적, 내면적 메시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매력있는 캐릭터들 간의 긴장감 있고 흥미로운, 독특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편애니메이션 으로서 필요한, 흥미와 깊이를 모두 겸비한 이 작품을 심사위원 세명은 미리내로 수상작으로 만장일치로 입을 모았습니다. (한지원)

When we look beyond the restrained imagery and dialogue, the world inside this animation seems unpredictable yet also familiar. The direction feels like a quiet chanting rather than loudly shouting about the longing to be connected to a place that is severed. The main characters are in the same space but have different social restraints, and their feelings are honest and textured under a deep and patient gaze. The story doesn't simply find sympathy but portrays the hearts of neighbors, who are at once close and far away, as belonging to lonely people much like ourselves. It's hard to imagine the detailed preparation and process that brought this story to life. It is not only about a social or inner message, but also characters with tension and a unique, interesting chemistry.

The three members of the jury unanimously chose the winner of the Mirinae Road competition for its depth and enjoyment as a feature-length animation. (HAN Jiwon)

[관객심사단상]

- 관객심사단상 Prize of Public Jury

[가구들의 사후세계] 김서현 KIM Seohyeon

감독의 따뜻한 시선과 독창적인 상상력이 더해져, 버려진 가구들이 지닌 기억과 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낸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탄 가구와 인간 사이의 보이지 않는 유대를 바라보게 하면서, 이 별과 남음이라는 누구나 겪는 경험을 독특한 세계관으로 비춥니다. 익숙한 오브제를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과 기억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점이 특히 인상 깊으며, 관객은 그 속에서 잊힌 것들이 여전히 품고 있는 따스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작품은 일상적 소재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확장시켜, 관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체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객심사단 홍혜미)

The director's warm perspective and unique imagination come together to delicately reveal the memories and feelings of discarded furniture. By letting us look at the invisible bond between people and the furniture that was used for a long time, the world within the animation shows the universal experiences of separation and staying behind. Childhood memories are shown through familiar objects in a strikingly lyrical way, allowing the audience to discover the warmth and importance still held by these forgotten objects. In this way, everyday objects are expanded through artistic imagination, offering an emotional experience that the whole audience can relate to. Therefore, this animation was selected for the audience jury prize.

(HONG Hyemi, Public Jury)

[애니 WIP 피칭]

- 애니 WIP 피칭 Ani WIP Pitching

[An Apple] 안현정 AN Hyunjung

이 작품은 공감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끝없는 시도를 통해 감독의 확고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 껍질은 선뜻 다가가기 쉽지 않은 난해함과 과감한 시각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본인의 과거, 트라우마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미래로의 상승입니다. 작품의 서사가 시간순으로는 뒤로 가지만 감독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작품과 함께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실 바랍니다. (임채린)

In this animation, synesthetic imagery is expressed through endless iterations that show the director's clearly established world. On the outside, the bold visual language and complexity may seem hard to approach, but inside there is a universal story that applies to everyone. It's about our past and the trauma that we experience as we live through life, as well as having the courage to face them and ascending into the future. While the narrative moves back in time chronologically, we hope that through this opportunity the director and the animation can take another step forward. (IM Chaerin)